

9월 14일 일요일, 『엑시빗』 1호 참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동체를 모색하며.

* 1호 참여자 김지영, 안수민 님은 개인적인 일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에 응해 주신 분들, 아쉬운 마음 나눠 주신 분들께 아울러 감사 인사 전합니다.

4. 우리 동네 (2) – 지키기, 비판과 항의를 더한

강재영, 강지웅, 고근호, 이연숙(리타), 표민홍, 허호정, 황웅태

웅태

프리즈가 있음으로써 미술계에 어떤 질적인 상승이 있었던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얼마간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 ‘프리즈’라는 소실점을 중심으로 모든 행사들이 다 재정렬이 되는 인상을 받아서요... 관객으로서 진짜 불만인 게, 프리즈만 없었다면 느긋하게 1년동안 볼 수 있었을 전시가 다 여기로 집중이 되니까,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열 받는 지점 중 하나고요. 사실 저는 ‘내년이면 프리즈가 끝난다’, 그러면 ‘이제 또 재밌는 게 생기겠지?’, ‘드디어 4년, 1년만 참자.’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어디서 들려오는 얘기가... 프리즈 재계약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숙(리타)

앞에서 지웅님이 ‘아르코 데이’ 언급하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기간에 작가, 기획자, 스태프 다 동원되고 몰려서 집약적인 노동을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런 식의 사이클이 문제적으로 연결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단지 이 기간에 반짝 힘든 게 아니라, 미술계 생태계 주기가 9월을 중심으로 재구축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즉, 환경, 시계를 비롯한 모든 게 다 바뀌는 감각이 진짜 문제적이거든요. 9월에 행사가 생겼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9월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한 해를 재구성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자원의 집중과 분배 차원을 들여다봐야 하죠. 웅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년 동안 천천히 나눠서 봐도 모자란, 작가가 2-3년 동안 혹은 1년 동안 준비한 작업을 몰아서 한 기간에 다 봐야 한다면요... 9월 되면 사람들이 하루에 전시를 5개씩 보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오프닝 맞춰 간다면. 이런 종류의 일들이 계속 축적되는 게 결국 손상의 감각으로 이어지고, 미술계가 잠재적 동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극심한 피로감과 상처를 주는 걸로 보여요. 장기적

인 차원에서 무서운 거죠. 프리즈 빼고 아무도 안 남게 되는 상황이 언젠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들”은 또 모르겠네요.

지웅

뭔가 프리즈 시즌 얘기를 한 건데, 기금 시즌 상황이랑 겹쳐 들리기도 하고 그렇네요. (프리즈 전에는) 기금 시즌에 맞춰서 1년이 배열됐었고, 그게 기준 관행이었잖아요. 돈이 미술계에 몇십 억 뿌려지는 시점에 뭔가 집중이 되는 패턴이, 비슷한 시기 9월에 프리즈가 들어오면서 1년이 재배치되는 것도 그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절대적인 무엇을 만드는 거죠.

전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편인데, 작업의 사이클이 그런 식으로 맞춰졌어요. 시기 되면 기금 신청을 하고, 기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신작을 만들고 그걸로 전시하고, 연말 되면 또 지원서 쓰고, 돈을 받으면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이 만들어져 있어서 전시를 해야 하는 순서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금을 받았으니 어떻게든 해야지... 하는 것. 이게 저만 그런가,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서 토크를 듣게 됐는데, 경력 많으신 기획자님이 서울의 수없이 많은 전시가 보통은 기금을 받아서 창작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금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미술계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뭔가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의 흐름)과 별개로 뭔가를 계속 하는 것이 ‘좋은’ 전시를 말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작업과 전시엔 항상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부동산의 문제다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개인전을 (서울에서) 완전 외떨어진 곳에서 하게 됐어요. 지금 준비 중인데, 거기 부동산은 너무 저렴해요. 그런데 사람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곳에 있고... 접근성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전시를 왜 해? 사진 찍으려고 전시하나? 나 스스로를 위해서?... 앞뒤가 안 맞는 일인 거죠. 결론은, 어쨌든 자본에 얹매이기가 너무 쉽고, 멀어지길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웅태

지금의 기금 제도는 ‘보는’ 경험에서 전시를 좀 떨어트려 놓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이미 만들어진 전시나 작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만 청사진을 보고 그 미래에 베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평가 측면이 ‘전시를 보는’ 감각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약간 뒤집어 보면, 전시가 먼저 있고 그 후에 기금이 돌아오는 선택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요, 이렇게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특정층이 더 유리해질 수 있죠.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기금의 다양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져야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호

프리즈 논의하다 보면 결국 기금으로 얘기가 이어지는 거 같아요. 기금에 대해 드는 제가 가진 생각은, (지금 기금은) 작가가 받는 비중이 너무 크다. 선후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는 헷갈리지만, 기획자한테 돌

아가는 뜻이 없어서 독립 큐레이터가 적은 건지, 독립 큐레이터가 적어서 기획자한테 돌아가는 뜻이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에서 생기는 독립 공간들의 운영 주체가 작가인 경우가 많단 말이예요. 큐레이터가 운영하는 새로운 공간들이 좀 많아지면 확실히 씬이 바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기금이 운영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기획'에 기금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한다면, (씬이 전체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가도 일년에 한번 기금에 의해서만 선택받는 게 아니라, 기획자들에 의해 선택받고 전시하는 경험들이 많아지고, 그럼 전시의 양상이 좀 더 다양해질 테니까요. 그러면 작가에게 피드백의 기회가 많아지는 식으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호정

한번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프리즈를 중심으로 1년이 재배치되는 사이클은 애초에 서울이라서 용이했던 것 같다, 기금을 중심으로 이미 1년이 편성되던 관행이 있었으니까. 프리즈 이전에도 9-10월은 전시 성수기였죠, 부동산 논리에 의하면. 대관공간들은 9-10월에 진행하는 전시 대관료를 비싸게 받기도 하고요. 내년도 기금 신청은 9-10월에 하고, 비슷한 시기에 전시 열어서 당해연도 정산을 12월에 마치고, 다시 9-10월부터 1년 준비하고. 그렇게 이미 사이클이 잡힌 상황에 프리즈도 딱 겹쳐버려서, 완전 빵 터진 거라는 얘기죠. 그 포텐은 이미 마련돼 있었던 것 같고.

닭이 먼저 달걀 먼저 그런 문제로, 돈과 작업, 부동산과 작업의 문제를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해 온 어떤 '동네'를 상상하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 멀리 있어도, 언제 열려도, 누군가는 사실 좋은 전시 찾아가잖아요. 그게 미술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신생 공간 찾아가서... (일동 웃음). 그게 없었던 일이 돼 버린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웅태님 말씀대로 기금을 어떤 식으로든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권자는 아니니, 제도가 이미 그렇게 돼 있다면, 이를 다른 방향으로 상상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근호님 제안대로 큐레이터 주체, 기획 공간이 많아지는 것도 대답이 될 수 있겠고요.

연숙(리타)

방금 호정님이, 전시장이 저 멀리 있다 하더라도, 뭔가 희소성이 있고 정말 봐야 되는 전시라는 생각이 있으면 다들 갔다는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는 어쩌면 우리의 가치가, 그런 것들에 조정되어 있었던 때인 거죠. 우리의 보는 눈이 그런 것들을 쪼도록 조정되어 있었던 것. 그러니까 전시가 그렇게 멀리 있어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멀리 있는 무엇은 전시라기보다 그냥 '퍼포먼스'처럼 여겨지잖아요. 몇몇 이 '증인'이 되는 정도의, 좀 기간이 긴 퍼포먼스. 휘발되는 것.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감각이, 뭔가를 경험하고 본다는 것보다 먼저 있는 것 같거든요. 미술계 구성원들이 이걸 바라보는 눈을 좀 재조정할 필요도

있는 듯해요. 책임감을 좀 가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책임감.

- 웅태 소문으로 존재하는 전시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본 사람은 별로 없지만. '아 그거 안 봤어? 인생 절반은 손해 봤다,' 이런 전시들. (일동 웃음) 약간 전시 경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더 풍부해지면, 더 적극적인 관객들이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신생공간 시절에 이런 방식으로 반짝거리던 순간들에 대한 기억들이 저한텐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또 다시 한번 그런 관람 경험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고민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연숙(리타) 웅태님 얘기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관객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분명 있는데, 동시에 작가들에게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엑시빗』 1호 글 쓰면서 깨달았거든요. 사실, (전시의) 주체는 미술관이 아니라 작가다! 작가가 거부하면, 미술관은 전시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작가들이 단체로, 같이, 지금 제도—기금이든 전시 관행이든—바꾸자고 항의를 하면? 물론, 이건 좀 허무맹랑하고 막연한 상상이죠. 거의 불가능함. 작가들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체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작가가 되는 거라고요. (일동 웃음) 그런데도 저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이게 한 번의 어떤 계기만 있다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아는 작은 계기만 있다고 해도, 되게 많은 게 바뀔 수도 있다는 ... 막연한 희망이요. 기금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쪽에서 배 째라는 식이지만, 뭔가 작가 쪽에서도 '배 째' 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 재영 조금 결이 다를 순 있는데, 실제로 그간 기금을 거부하거나, 기금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기를 당겨보면, 『굿-즈』 직후의 움직임들이 대체로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상업성의 차원을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프리즈랑 연결되지 않나 싶은 흐름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전시 공간 운영하는 분들이 기금에 반감이 있으면서도 판매 없이 유지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지를 자연히 고민하게 되는 거 같아요. 기금 아니면, 판매. 그 외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작업 자체가 흥미로운 빈틈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 호정 이미 기금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각자의 '지속성'을 질문하고 고민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답이 '나 올해도 기금 지원서 열심히 쓰고 있어' 밖에 없는가? 지속성 질문은 뭘 향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해요. 민홍님이 지나가는 말로 '어쩔 수 없다,'는 말 너무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거기에 답해왔는가, 이런 생각을 좀 새삼스럽게 하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좀 생각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민홍

지금 서울 미술의 자생 시스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프리즈 얘기로 돌아가게 되네요. 전 프리즈 본 전시 다녀왔고, 약수동에 새로 생긴 '프리즈 하우스' 다녀왔어요. 나머지 '나잇'들은 작년엔 몇 군데 다녀 왔지만, 올해는 그냥 좀 쉬고 싶었죠. 올해 '나잇'을 다녀온 분들께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대부분 행사 참여하는 목적이 비슷 하더라구요. 공짜 술과 공짜 음식, 소셜라이징... 그 분위기에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 딱히, 이게 미술계 자체 또는 신진 작가들을 위한 부흥을 위한다기보다는, 그와 관계 없이 단순히 파티의 장이 된 거죠. 9월 서울은 프리즈가 주인공인 파티다. 혹은 서울 미술 씬은 1년 내내 프리즈만 주인공인?

프리즈 기간에 열린 전시와 행사 중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딱 그 기간 동안, 일주일만 하는 전시들도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다 갈 수가 없죠... 앞서 나온 얘기들이랑 비슷한 맥락이지만, 왜 우리가 팔 걷고 나서서 프리즈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있는가, 답답하죠. 프리즈 대표가 '50년 바라본다' 말했다는 인터뷰도 있지만,¹ 만약에 어느 순간 프리즈가 빠지는 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해 쉬었더니, 아무것도 없네?', '우리 없으면 뭐 못하네?' 이런 식이 돼 버리면? 프리즈, 50년 갈까요?

호정

지역 비엔날레가 그렇잖아요. 지역에선 비엔날레 시즌이 아니면 미술 활동이 다 죽어버린다는 이야기를 지역 작가들이 해온 지가 아주 오래됐잖아요. 대표적으로 광주만해도, 진짜 2년에 한 번씩 걸리는 열병 같은 거니까요. 여전히 비엔날레 열리면 관객은 몰리는데, 그 외의 기간 동안에는 거의 고요한 곳이 되어버리니까. 맞아요. 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민홍

그 기간에만 반짝 활발해지는 것이 눈에 너무 보이는 거죠. 많은 갤러리들이 9월즈음 갤러리의 메인작 가라고 여겨지는 작가의 전시를 열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를 제외한 때를 떠올렸을 때 애매한 감각들이 있을 거잖아요. 한국 미술 씬이 이렇게까지 무력했나 싶은?

재영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어요. 『월간미술』에서 프리즈 기간에 영문 특집호를 제작하게 됐는데,²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 미술 공간들을 인터뷰 했거든요. 해외에서 한국미술을 바라볼때 어쨌든 신진보다는 좀 더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쌓아 놓은 작가들이 선택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기반에 독립적으로 자생하는 떠오르는 미술 생태계가 탄탄하게 받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독립 미술 공간을 한 자리에 모은 '더프리뷰' 아트페어에 참여한 신생 갤러리 인터뷰를 진행했어요.³

근데 흥미로운 게, 더프리뷰 참가 신생 갤러리 디렉터들이 '우리는 프리즈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지 않다', '우리 1년 스케줄 대로 진행한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프리즈가 열리는 기간, 9월

에 한국 작가를 소개하는 신생 갤러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이미 1년 중 꽉 찬 스케줄 소화하느라 그 기간에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저기 걸쳐 있는 동네들 사이에는 나름대로 프리즈에 대한 반감이나, 프리즈와 상관없이 움직이려는 경향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당연히 프리즈로 모든 게 다 몰려 있으리라 가정하고 인터뷰 질문을 던졌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외국 관객 상대로 ‘한국’ 작가 소개해야 한다는 강박도 별로 없었고요. 또, 저희가 선정했던 공간들 중 2-3군데 정도에서는 같은 기간에 해외 큐레이터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하고도 있었어요. 자신들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로 자기 호흡에 맞춰 전시를 운영하는 거죠. 또 다른 에너지가 씬에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숙(리타) 그렇네요. 우리가 만드는 버블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프리즈 비판 자체도요. 같은 ‘미술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프리즈가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강릉에 있는 친한 작가들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뉴스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실제로도 지금 강릉 가뭄 문제 너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디선 물이 없어 난리인데, 프리즈 얘기 꺼낼 필요도 여력도 없죠. 서울 안에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비판의 초점을 프리즈로 가져가고 있고, 반대로 내가 프리즈만 보고 있기 때문에 프리즈를 비판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가 오히려 문제를 재생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재영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매체 기자로서... 이 모든 상황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자기 반성하긴 했거든요.

일동 매체는 그렇죠. 맞아요. (웃음)

호정 저는 프리즈 이번에 처음 가 봤어요. 전시를 평소에 많이 보는 관객이긴 하지만, 미술 관계자는 아닌 친구랑 같아요.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덕분에 좀 이 시즌의 피로로부터 거리를 둔 채 관람하게 됐는데요. 약간 디톡스 느낌으로... 친구랑 둘이 해맑게 좋은 작품 좋다고 하면서 그냥 놀듯이 보고 나니까, 그리고 보니 ‘나랑은 더더욱 상관이 없는데?’, ‘사실 프리즈는 프리즈일 뿐이잖아?’ 싶더라고요. 말 그대로 시장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싶은 맘이 든 거예요. 나와 거리를 만들고 떨어트려 보는 시도를, 이런 식으로 오히려 경험해봤던 것 같고요.

재영 혹시 주변 분들 중에 ‘키아프리즈’ 때문에 너무 우울해지신 분들 없으세요?

일동

많죠.

재영

저는 평평 우시는 분도 봤어요. (그 기간에) 아예 아무데도 못 나가고, 자기 영역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끼면서.... 벗어날 수 없는 자본 논리 안에서, 그리고 생존이라고 하는 차원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용인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점을 개인적으로는 이해도 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 말씀 들 듣기도 하면서, 그런 우울들을 계속 목도하고 위로도 하게 되는 상황을 좀 달리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거리두기가 너무 필요한데... 그거 잘 안 돼요.

웅태

저는 고등학생 때 키아프를 좀 다니다가, 거의 13년만에 올해 키아프를 가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하나도 흐르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구나, 나는 시간이 흐르는 곳에서 살아야겠다....

민홍

(웃음) 프리즈의 세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와 교집합을 가진 또 다른 동네에 걸쳐 살고 있는 건데요. 사실 교집합조차 없는 또 다른 미술 세계들이 9월에 보이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본을 기준으로 계급이 있다면 프리즈가 제일 위에 있고, 우리 쪽은... 위-아래라기보다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아래에 위치하는 페어와 갤러리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펜대를 앞세운 ‘우리’ 미술인들이 하는 ‘프리즈 비판’이 아니꼬울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아는 미술에 관해, 그 미술의 언어를 사용해서, 전시의 기준, 전시를 만드는 행위, 그리고 그것에 참여자들을 잘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생태계 안에서.

재영

앞서 나누어주신 이야기를 제 이해를 위해 정리해본다면, 아트위크에서 나와 동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어쩌면 프리즈가 우리가 활동하는 ‘씬’을 참조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존의 시장인) 키아프는 우리 자리가 아니라 여기며 어느 정도 분리해 바라볼 수 있었는데, 프리즈가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우리 씬을 활용할 때 그 비판적 거리두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프리즈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구조로 초점을 좁혀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씬, 파편화된 방식으로든 어떻든 우리 나름대로 잘 놀고 있던, 각자의 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던 장으로서의 우리 씬이 있었는데, 그게 마치 착취당하는 듯한 감각인거죠. ‘동시대 미술’, ‘현대미술’이라는 이름으로요. 우리가 지지고 볶고 있던 걸 대형 자본·럭셔리 브랜드에서 참조 인용하여 전시하고 콜라보하던 유행도 벌써 7-8년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안 하잖아요, 효용이 떨어

지니까요. 프리즈가 어떤 방식으로 지속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구조적으로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씬에서 전시를 어떻게 계속 만들고 차별적으로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웅태

이 긴 대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군요? (일동 웃음)

- 1 성수영 기자, “반환점 돈 키아프-프리즈...”앞으로 50년은 하고 싶다”, 『한국경제』(2024-09-0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084585i>
- 2 『월간미술』영문 특집호 Boiling Point: Emerging Artists & Spaces in Korea, vol. 2: https://monthlyartkorea.github.io/ma_eng_vol2/
- 3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 <https://thepreviewartfair.com/tpaf/html/main.html>